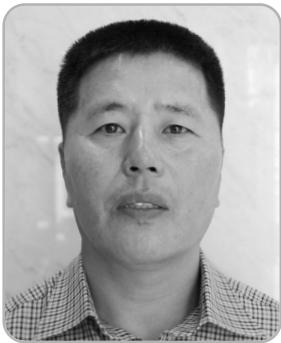




»산란계 자조금사업 정착방안(농가)

자조금은 우리의 살길이다



김진성
홍성채란지부장

이의 양계자조금사업이 처음 출범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1992년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자조금 거출 시기가 2009년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게 된 6월 1일과 같다. 시작과 함께 당해 년도에 총 129백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축산 자조금 시행에 모범사례로 꼽히는 기회가 마련됐었다.

그 후 금년 6월 1일 출범한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축산단체 중 가장 뒤늦게 시행되었지만, 산란농가의 잠재력은 어느 축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해보면서 산란계자조금대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자조금 정착방안에 대한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의무자조금 정착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산란업계의 사업 여건은 육계, 양돈, 한우, 낙농산업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계란제품이 수입되는 양은 국내 계란총생산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계란은 현재 100%에 가깝게 국내 생산과 소비가 동시 이루어지지만, 언제까지 이 자급율을 지켜 나갈 수 있을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미국, EU와의 FTA가 타결되면서 앞으로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대비할 시점에 와 있다. 미국과의 FTA 타결은 난가공제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고, 중국과의 FTA 피해는 가공품 뿐 만 아니라 신선란까지 수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AI와 위급한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지만 가금수급위원회가 운영하는 수급조절 자금이 고갈되어 AI 발생 후 계란 소비 감소 대책으로 실시되었던 양계산물 비축사업



및 소비홍보 사업은 온전히 자조금 예산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밖에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농가가 알고 있겠지만 산란업에 당면한 계란소비 증가를 위한 소비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등에 자조금이 사용되게 된다.

2. 농가 납부지 가장 중요

양계의무자조금은 산란계자조금과 육계자조금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다. 산란계의무자조금은 산란계의 최종 생산물인 계란의 소비홍보와 산란업의 당면과제를 자조금을 사용하여 해결토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산란계의무자조금의 거출 기준은 도계한 노계수당 100원이고, 수납기관은 도계장에 위탁하고 있다.

도계한 노계는 농장에서 출하한 생닭이 아니고 도계장에서 도계된 닭을 말한다.

또한 수납기관이 도계장이기에 농가는 노계 출하 시 중간상인과 거래하던 도계장과 직거래를 하든 자조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산란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면, 중간상인은 도계장에 자조금을 납부하고, 도계장은 매달 20일까지 전달 1개월간 수납한 자조금을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게 된다.

다시 설명하면 농가는 중간상인에게 노계를 판매할 때 자조금 거출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



고, 중간상인은 농가에게 지급할 닭 대금 중 자조금으로 수당 100원을 공제한 뒤 지급하고 이를 도계장에 대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온적인 농장, 도계장, 중간상인 태도로 자조금 거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자조금 거출에 미온적인 농가라면 양계협회, 자조금대의원들이 설득하고, 중간상인과 도계장은 이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농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홍성, 예산 농가들처럼 자조금납부 결의서를 도계장에 제출하여 농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가장 효과적

이라고 본다.

3. 무임승차 의식 버려야

현재까지 자조금은 농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상 농가만이 자조금의 주인이라고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산란업계는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산란농가의 생산기반이 허물어져 간다면 농가와 거래하고 있는 사료, 약품, 기자재, 중추, 병아리, 노계, 계란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악화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자조금은 그 품목에 관

련된 주체가 자조금을 거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란계 실상은 어떠한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남이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지 않은가!

내가 하지 않으면 남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란계의무자조금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농장 각자 스스로의 의무감으로 내 농장 내 사업이 잘되기 위해,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이 정착되도록 모든 농가가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산란계의무자조금은 올해 19억에서 내년 40억, 5년 안에 100억, 10년 안에 200억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농가와 산업 주체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